

\*이 논문은 공동 연구에 의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 일본에서의 한국 중·근세사 연구교육기반

## — 大學 · 學會 · 관관정보 —

吉田光男

머리말	제2장 연구와 교육의 현상
제1장 연구와 교육의 역사	1. 대학
1. 제2차 세계대전 前	2. 학회
(1)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	제3장 한국사 연구 관련 정보
(2) 경성 제국대학과 조선사편수회	1. 통사 · 개설서
2. 제2차 세계대전 後	2. 사전
(1) 대학	3. 연구 문헌 목록
(2) 학회	4. 연구자명감

### 머리말

본고는 대학의 전문 과정과 학회라고 하는 연구 교육 조직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에서의 한국 중·근세사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역사와 현상을 통시적으로 개관하고 나아가 연구 성과로의 접근 방법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본 분과회의 담당 시기인 중·근세 한국사의 연구와 교육이 어떠한 기반 위에 성립되고 있는지를 보여 연구나 교육에 대해 문제나 의문이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본 고가 목적으로 하는 바이다. 연구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이며, 역사 그 자체 연구로서의 논문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 말하는 중·근세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고려·조선시대를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현재 몇 개의 대학에 전문 과정이 설치되어 역사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국사 학회도 3개가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1990년대 이후의 변화는 눈에 띌만한 것이었다. 그 현상의 파악은 현재 일본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교육했으며, 또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불가결한 것이다. 필자도 다양한 기회에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개략에 대해서도 소개해 왔었지만, 매우 조잡한 약식도를 그려 본 정도로 지나지 않았으며,(1) 아직도 상세하고 본격적인 전체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되었던 언급되었던 적은 없었다. 특히 중·근세사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한편, 연구 성과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중·근세 한국사 연구와 일·한관계사 연구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사 연구 일반에 관해서도 정보 부족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 정보의 제공이 기다려지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본 분과회의 담당으로서의 관련에 대해 말하자면, 제1편의 僞使·文祿慶長의 役·通信使라고 하는 3개 주제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서 명확해진 바와 같이 중·근세 일·한관계사 연구를 지지해 온 것은 주로 일본사 연구자이며, 한국사 연구자는 아니었다. 중·근세 한국사 연구자의 관심은 한국내부의 歷史事象에 놓여져 있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관심사였다. 이것은 일본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방향성과 깊게 관련하고 있는 일이지만, 생각해 두어야만 하는 것은 중·근세 한국사의 중요성에 비교해, 일본에서의 연구자의 수가 너무 적다고 하는 문제이다. 아마도 전부 2·30명 정도는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중세(고려시대)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는 셀 수 있는 정도 밖에 없는 것 같다. 그 배경에는 같은 동아시아의 역사 연구라고는 말하면서, 일본사나 중국사에 비하면 한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너무나 적다고 하는 실상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과를 올려 왔던 것은 확실하지만, 연구와 교육 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 향후 방향성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적 관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요즘 점차적으로 충실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일본에서의 한국사 연구와 교육, 특히 중·근세사와의 관련성에서는 아직도 불충분한 감을 벼릴 수 없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에서는 중·근세사 연구 그 자체의 수량이 다른시대에 비해 적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중·근세사 연구만을 채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그렇게 한다면, 중·근세사의 연구 교육 그 자체의 상황이 불분명하게 되어 버린다. 연구와 교육에 대해 중·근세사도全시대사 안에 일부로서 과문혀 버린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근세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관계되는 한도 내에서 한국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게 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현상을 근거로 하여 대학 전문 과정과 학회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한국 중·근세사에 관한 연구 교육의 역사와 현상 및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工具에 대해 자세한 가이드 맵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국사의 연구 교육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것도 될 것이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 중·근세사 연구와 교육의 역사를 자세하게 보겠다. 제1장에서는 우선 前史로서 제2차 세계대전전의 상황을 전망한 후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역사를 살펴 나가겠다. 제2장에서는 연구와 교육의 현상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한국사 연구 교육 기반의 양상을 명확히 하겠다. 제1장과 제2장을 통해서 일본의 연구 교육 속에서 중·근세사의 위치 설정을 실시한다. 이 2개의 장은 대학 전문 과정과 학회를 대상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며, 개별의 연구와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제3장에서는 개설서·사전·문헌목록·연구자 명감 등, 연구 성과에 접근해 보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공구류를 소개한다. 중·근세의 한국사, 일·한관계사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본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도달점과 그에 접근하는 방법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1장 연구와 교육의 역사

### 1. 제2차 세계대전 前

#### 1) 도쿄(東京)제국대학과 교토(京都)제국대학

대학에서 최초로 개설된 전문적인 한국사 강좌·강의는 고대사와 중·근세사였다.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가장 빨리 한국 관계의 전문 교육을 시작한 것은 도쿄 외국어 학교(현 도쿄 외국어대학) 조선어 학과로 1880년의 일인데,<sup>(2)</sup> 한국사 강좌 개설의 효시는 도쿄제국대학(현 도쿄대학) 문과대학이다. 1914년 8월, 칙령에 의해 국사·서양사·동양사의 각 강좌에 이어 「朝鮮史一講座」의 설치가 결정되었고,<sup>(3)</sup> 1916년의 신학기부터 그때까지 강사로서 동양사를 강의하고 있던 池內宏이 조교수로 취임해 강좌 담당 교원이 되어, 한국 전근대사(고대·중세·근세)를 강의하게 되었다.

동 강좌는 16년 후인 1932년에 동양사 강좌와 합병해 동양사학과의 일부가 되지만, 다음에 보는 경성 제국대학 사학과가 조선사 강좌를 개설할 때까지는 일본에서 유일한, 또 동 강좌 개설 후는 일본 본토에서의 유일한 한국사 전문 강좌이며, 여기로부터 전후 일본의 한국사 연구의 중심이 되는 旗田巍 등의 연구자가 자라났다. 동 강좌는 池内가 정년 퇴관하는 1939년까지 존속했지만, 그 후, 한국사 전문가가 충당되지 않은 채 일본의 패전을 맞이하게 된다.<sup>(4)</sup>

한편, 같은 무렵 교토제국대학(현 교토대학)에서는 今西龍에 의해 조선사 강의(고대·중세)가 시작되고 있었다. 今西는 1913년에 교토제국대학 문과 대학에 고고학 표본 취급 주임으로서 부임하여 처음에 강사로서 「조선사」를 강의했지만, 1916년에 조교수로서 동양 사학과로 옮겨, 계속해서 조선사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sup>(5)</sup> 이렇게 하여 기이하게도 같은 1916년에 도쿄·교토 양 제국대학에서 전임 교원에 의해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한국 전근대사를 강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今西가 1932년에 사망한 후, 교토제국대학에서 조선사 강의는 폐강된 것 같다.

일본에서 최초로 한국사 전문 강좌를 개설한 것은 도쿄제국대학이며, 교토제국대학에서도 동시에 한국사 강의가 개설되어 양자 모두 고대·중세·근세의 역사가 강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교육 센터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이 두 개의 대학이 아니라, 다음에 보는 경성 제국대학이다.

## 2) 경성(京城) 제국대학과 조선사편수회

1924년 4월 1일, 식민지 조선의 정치 중심 도시 경성(현 서울)에 제6번쩨의 제국대학으로서 경성제국대학(豫科)이 탄생했다.<sup>(6)</sup> 1918년의 대학령에 의해, 제국대학 이외에 전문학교가 관립대학이나 사립대학으로 승격하고 있었지만, 1924년 당시, 그 수는 합해 30개 정도로 지나지 않았고, 戰前期의 일본에서 경성제국대학은 결출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은 1926년에 법문학부와 의학부로 본과를 개설했고, 그 당초부터 법문학부 사학과에 조선사 강좌를 설치하고 있었다.<sup>(7)</sup> 사학과는 국사학·조선사학·동양사학의 각 강좌로 구성되어 교관 5명으로 출발했다. 소속 학생은 5명, 그 내역은 한국인 2명·일본인 3명이었다.<sup>(8)</sup> 이 조선사 강좌는 아래에서 보듯이 고대사와 중·근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학과의 중심이 된 것은 조선사학이다. 국사학과 동양사학이 각 1 강좌에 대해서 조선사학만은 제1과 제2의 두 강좌제를 취해, 2명의 교원으로 출발했다. 제1 강좌는

今西龍 교수(고대·중세·근세)가, 제2 강좌는 小田省吾 교수(근세)가 각각 담당했다. 1927년에 서양사 강좌가 개설되었고, 또 때로는 동양사학이나 국사학으로 제2강좌가 개설되는 경우가 있어 사학과로서는 교원 6인 체제가 되었는데, 이 안에서 조선사학은 일관해서 두 강좌제를 취해, 항상 최대 세력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연구·교육의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각 연도의 『경성제국대학일람』과 『경성제국대학보』에 의해, 조선사 강좌의 교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모두 고대부터 중·근세까지의 전근대사 전문가이다.

今西龍<sup>(10)</sup> 1926~32年

小田省吾 1926~32年

藤田亮策 1932~45年(考古學講座에서 이적)

末松保和 1935~45年

그런데, 경성 제국대학에는 조선사 강좌 이외에 수많은 한국 관계의 강좌·교원이 배치되어 다방면으로부터 한국연구·한국교육을 행하고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에서의 한국연구에 대해서는 별씨 田川孝三의 자세하고 소상한 글<sup>(11)</sup>이 있으므로, 그 상세에 대해서는 이것을 참조하길 바란다. 여기에서는 조선사학 강좌 소속자를 포함해 한국 연구·교육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원을 정리해 보았다.<sup>(12)</sup>

우선 개설 당초의 진용을 강좌별로 보면, 이하와 같다.

<조선사학> 今西龍·小田省吾, <조선어학문학> 小倉進平·高橋亭, <고고학> 藤田亮策(재외 연구 중), <사회학> 秋葉隆, <국사학> 田保橋潔, <경제학> 四方博, <정치학> 奥平武彥

이 9명은 법문 학부의 교수·조교수 합계 35명의 4분의 1을 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외의 교원도 형법·형사소송법 담당의 花村美樹 교수가 한국전통사회의 법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많은 교원이 한국 연구에 손을 대어 있었으며,<sup>(13)</sup> 특히 주목받았던 것이 중·근세의 역사 또는 문화이다.

이것이 개설 15년이 지난 1942년에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sup>(14)</sup>

<조선사학> 藤田亮策·末松保和, <조선어학> 小倉進平(도쿄제국대학 병임)·河野六郎, <동양사학> 烏山喜一, <교육학> 田花爲雄, <사회학> 秋葉隆, <법제사> 内藤吉之助, <경제학> 四方博·鈴木武雄, <외교사> 奥平武彥

법문 학부 교원은 58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의 11명은 전체의 20%미만이 되어, 비율은 저하했지만 수 자체는 증대하고 있고, 타분야의 교원이라도 많은 사람이 한국에 관한 연구에 관여하고 있었다<sup>(15)</sup>는 것, 또 중·근세에 연구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개설 초기와 같다. 이 외 1927년부터 1940년까지 종교학 종교사 강좌로 赤松智城 교수가 한국문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경성 제국대학 법문학부는 확실히 戰前 期 일본에서의 한국연구·교육의 센터이며, 게다가 그 중심이 되고 있던 것은 중·근세사였다.

그런데 경성제국대학의 큰 특색 중의 하나는 교수·조교수가 모두 일본인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16)</sup> 한국에 있는 한국학 연구·교육센터이면서도 경성 제국대학에서는 한국인이 교수·조교수로 채용되는 일이 없었다. 더욱이 한국인 강사에게는 조선사학의 수업 담당을 시키지 않았다. 경성제국대학 학생은 끝까지 한국인 역사 연구자로부터 수업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땅에서 개설하여 한국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맡으면서도 한국인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 경성제국대학이었다.

경성에서는 경성제국대학 이외에 1925년에 조선총독부 중추원에 설치된 조선사편수회가 역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여기서 다루어졌던 것도 고대부터 근세까지이다.

본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中村榮孝의 상세한 글<sup>(17)</sup>이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이것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개요만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본회의 사업은 『조선사』를 편찬하는 것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유신사료회편 『維新史料綱要』를 모방하여 고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료를 사항별로 정리해 개요를 붙이고 그것을 연월일순서로 배열하는 것이었다. 『조선사』는 고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전체를 6편으로 나눈 본편 35권과 권수(총목록) 1권 및 총색인 1권, 합계 37권으로 1932년에 간행을 개시해 1938년에 본편 전책의 간행을 끝내고, 1940년 총색인 간행으로 편찬 사업 그 자체가 종료되었다.<sup>(18)</sup>

이것을 인적 측면으로부터 보면 모두 합쳐 修史官(補)이 14명, 촉탁이 34명 임명되고 있어 양자의 중복을 제외한 합계 40명의 내역은 일본인 27명에 대해 한국인은 13명이었다.<sup>(19)</sup> 修史官 稲葉岩吉·藤田亮策·中村榮孝·末松保和 등이 후에 경성 제국대학 교원이 되었고, 또 田川孝三·丸龜金作·申奭鎬 등의 졸업생이 修史官으로 취임하는 등, 두 기관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던 감이 있다. 편찬의 중심은 조선시대, 즉 중·근세였으며, 모인 역사 연구자도 그 시대의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본다면, 제2차대전 전에 경성제국대학과 조선사편수회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던 역사연구·교육의 중심에 중·근세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전후, 크게 양상이 바뀌게 된다.

## 2. 제2차 세계대전 後

### 1) 대 학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대학에서 최초로 한국 관계의 전문 연구교육조직·과정을 개설한 것은 텐리(天理)외국어학교의 후신인 텐리대학 외국어학부 조선문학어학과로 1950년의 일이다. 여기에는 高橋亨氏·石原六三이 소속해 있었고, 秋葉隆·河野六郎·三品彰英 등이 강의를 맡았다. 이 이후 얼마간은 텐리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한국 관계 전문연구교육조직은 개설되지 않았다. 동 학과에는 平木實(근세사)가 소속해 있으면서 본격적인 역사학 교육도 행해지게 되지만, 그것은 꽤 후의 일이다.

1945년 9월 이후, 경성에서 연구나 교육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연이어 일본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藤田亮策이 도쿄 예술대학, 末松保和가 學習院대학에 秋葉隆이 처음에 큐슈(九州)대학, 후에 아이치(愛知)대학, 四方博과 中村榮孝가 나고야(名古屋)대학, 河野六郎이 도쿄 교육대학, 또 田川孝三이 동양문고로 각각 새로운 활동 거점을 확보해 갔다. 그러나 각지에 산재해 있었으며, 또 당시의 시대 상황도 있어 이전과 같이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행하고 있던 때와 같은 연구 활동의 재개는 바랄 수가 없었다. 한국 중·근세사 연구도 얼마간 겨울시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만큼 텐리대학의 존재는 귀중했고, 게다가 뒤에 살펴보는 조선학회와 조선사연구회라는 두 개의 학회가 큰 역할을 이루어 있었다.

1963년, 드디어 그러한 상황에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塚本勳(언어학)을 중심으로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에 조선어학과가 개설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도쿄외국어학교(현 도쿄외국어대학)에는 조선어과·한어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일본에 의한 한국 식민지화에 의해 폐지되어 버렸었다. 그것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거쳐 오사카외국어 대학으로 부활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재일 한국 조선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에 개설되었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듯하다. 동 학과에는 小野田求(근현대사) 등이 소속하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은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하여 패전 이래 20년을 거쳐, 단절되어 있던 국교가 회복되었다. 일·한의 사이에 전환기가 찾아와 민간인의 왕래도 가능

해졌다. 그러나 얼마간의 사이는 한국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교육 조직은 텐리대학과 오사카외국어대학이라고 하는 관서지방의 두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상태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197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이다.

1974년, 우선 큐슈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長正統(중세 일·한관계사)을 받아들여 큐슈대학(후쿠오카시)의 문학부 사학과에 조선사 전공이 개설되었던 것이다.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사 강좌 폐지이래, 거의 30년만의 역사연구 교육의 전문적 조직의 개설이다. 이 조직은 후에 浜田耕策(고대사) · 六反田豊(중·근세사) · 森平雅彥(중세사)으로 계승되어져 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부 단계로서는 유일한 한국사 교육 전문 과정이다. 혹은 학과 규모의 조직 개설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일본에서 최초라는 것이 되며, 주지한 바와 같이 이 과정은 고대사 · 중 · 근세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1977년에는 菅野裕臣(언어학)을 중심으로서 도쿄외국어대학 외국어 학부에 조선어 과가 개설되어 드디어 동일본에도 한국 연구 교육의 조직 정비가 시작되었다. 어학과라고 하는 점에서 어학 · 문학이 중심이며, 교원도 菅野 외에 長璋吉(문학) · 三枝壽勝(문학)으로 문학이라는 것에 굳혀져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선사정 강좌에 池川英勝(근대사) · 吉田光男(근세사) 두 명이 배치되어 역사학 교육에도 힘을 쏟아 가게 되었다.

1978년에는 梶井捲(문학)를 중심으로 토야마(富山)대학 인문 학부에 조선어학문학 코스가 개설되어 중부 일본에서도 한국 연구 교육의 장소가 넓혀져 갔다. 동 코스는 梶井 이외의 교원으로서 藤本幸夫(언어학 · 서지학)가 소속했다.

이렇게 하여 1970년대 말에는 관동 · 중부 · 관서 · 큐슈라는 일본의 4개 지역 국립 대학에서 한국교육 전문 과정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국립대학의 움직임에 대해 사립대학의 움직임은 10년 정도 늦었다. 한국 교육과정의 확장이 사립대학에까지 미친 것은 1980년대 말이 되고 나서부터이다. 우선 1989년에 濱中昇(고려사)을 중심으로 치바시(千葉)에 신설된 칸다(神田)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다.

게다가 1994년에는 쿠마모토상과대학이 확대 재편성 된 쿠마모토(熊本)학원대학(쿠마모토시)에 신설된 외국어학부 동아시아 학과에 矢野謙一(언어학)을 중심으로서 한국어 코스가 개설되었다. 동 코스에는 상학부의 朴宗根(근대사)도 교육에 협력했다.

1998년에는 후쿠오카(福岡)대학(후쿠오카시) 인문학부 동아시아지역 언어학과에 田村宏(언어학)을 중심으로 한국코스가 개설되었다.

이렇게 하여 연이어 한국 관계의 전문 과정이 개설되어 갔다. 이 시기의 특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어학관계 과정이 중심이라는 것, 둘째 그때까지 사용되고 있던

「조선」이 「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 즉, 1980년대가 되자 「한국」이라고 하는 호칭이 일본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세기 마지막 20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큰 변화가 왔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어학과정이라도 역사학 전문가가 소속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이해의 기초에 역사의 이해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중·근세사도 그 중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했다. 한국을 전통사회·문화로부터 해석하려는 자세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한편, 1993년에는 도쿄대학 문학부 부속 문화교류 연구시설에 동양사 연구실로부터 이적해 온 武田幸男(교대사·중세사)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첫 번째 연구전문조직으로서 조선문화부문이 개설되었다. 동 부문에는, 그 후, 吉田光男(근세), 伊藤亞人(문화인류학), 早乙女雅博(고고학), 로날드 토비(동아시아 근세사) 등이 소속해 전근대사(고대사·근세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한국 문화 연구가 목표로 정해졌다. 동 부문은 연구 전문 조직이며, 학생이 소속해 있지 않지만, 2002년에는 폐지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학원 전공으로 재편성되어 학생 교육 조직으로 바뀌었다. 1999년에는 큐슈대학에 학내조치로 한국연구센터(전임 교수 없음)가 개설 되었다.

이렇게 하여 20세기말에는 국립대학 5교(오사카외국어대학, 큐슈대학, 도쿄외국어대학, 토야마대학, 도쿄대학)와 사립대학 4교(텐리대학, 칸다외국어대학, 쿠마모토학원대학, 후쿠오카대학)의 합계 9교에서 한국 연구 교육 전문 조직이 정비되었다.

이상의 개설의 움직임을 연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50년 텐리대학 외국어학부 조선문학어학과
- 1963년 오사카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조선어학과
- 1974년 큐슈대학 문학부 사학과 조선사 전공
- 1977년 도쿄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조선어학과
- 1978년 토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어학문학 코스
- 1989년 칸다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
- 1993년 도쿄대학 문학부 부속 문화교류연구시설 조선문화부문
- 1994년 쿠마모토학원대학 외국어학부 동아시아학과 한국어 코스
- 1998년 후쿠오카대학 인문학부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한국 코스
- 1999년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

이들은 대부분이 어학과정이지만, 교원 구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9교내 6교가 한국사의 전문가를 전임으로 배치하여 고대·중·근세부터 근현대에 걸치는 한국사에 관한 교육도 행해왔다. 이 외, 학과 등의 전문 과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대학에서 전임교원에 의해 한국사 관계 강의가 개설되게 되었다. 20세기의 후반, 일본에서의 한국사 교육 사정은 어학과정의 충실과 함께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 2) 학회

### a. 조선학회

1950년 9월, 그 해 6월에 발발한 한국 전쟁의 전화가 퍼져, 장래에 대해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奈良縣 山辺郡 丹波市町(현 텐리시)의 텐리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자가 모여 조선학회가 결성되었다. 조선학회는 전국학회로서 성립했지만, 天理敎 真柱(교조)를 총재로 불러왔으며, 회장은 텐리대학 학장이 취임하고, 부회장 2명 중 1명과 간사장은 반드시 텐리대학 교수가 취임한다. (동회 회칙 제5조)라고 하는 학내 학회와 같은 약간 이례적인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텐리대학 내지 텐리교의 큰 지원이 있었다. 戰後 경제적으로 괴로운 시기, 그것이 없었다면 학회로서의 활동은 꽤 곤란했을지도 모른다.

설립 당초의 임원은 31명에 이르지만,<sup>(20)</sup> 그 가운데 텐리대학·천리교 관계자가 13명을 차지하였고, 나아가 경성제국대학의 구교수진으로서 3명의 총장 경험자(山田三良·滋賀潔·山家信次)와 1명의 豊科長 경험자(小田省吾)를 포함해 安倍能成·高橋亨·船田亨二·秋葉隆·藤田亮策·末松保和·河野六郎 등 합계 11명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 눈을 끈다. 더욱이 간사 가운데 前田利一·櫻井義之의 두 사람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생이며, 텐리대학·천리교 관계자와 경성제국대학 관계자가 마찬가지로 13명으로 임원 전체의 42% 씩을 차지한 것이 된다. 임원을 보는 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재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회원 자격이다. 회원에는 보통회원·찬조회원·특별회원의 3종류가 있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회원의 회원자격에 대해, 당초 회칙 제4조는, 「대학(舊制대학·新制대학 및 전문학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교 교육에서 조선 문화의 연구에 관여한 사람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려고 했었다. 연구와의 관계나 실력은 아니고, 「대학」「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경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동조는 후에 현행과 같이 「조선 문화의 연구에

관여한 사람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직한다.」라고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회원에는 한국 연구 모든 분야의 연구자가 포함되어, 역사학·언어학·문학·문화인류학 등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제분야부터 자연과학에까지 걸치고 있다.

1950년 12월에는 學習院대학에 도쿄지부가 개설되어 학회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도쿄지부에서는 1951년 1월, 末松保和가 世話役이 되어 學習院대학 도서관을 會場으로 한 월례연구회가 개시되어 전후 당분간 중단 상태에 있던 한국 연구를 재개하게 되었다.(21)

그것보다 조금 3개월 뒤인 동년 4월에는 텐리대학의 시설(도서관, 회의실)을 會場으로 본부에서의 연구회도 개시되었다.(22) 1951년 4월에는 회보로서 『조선학회회보』도 발행이 개시되어 학회로서의 체재도 갖추어져 갔다.

그렇지만, 조선학회 주최의 월례연구발표회는 본부의 회합이 1954년 5월 제15회로 끝이 나고,(23) 도쿄지부도 26회까지 시행되었지만, 1956년 9월의 회합이 마지막이 되었다.(24) 의외로 빠른 연구 발표회의 소멸이다. 그 한편으로 「조선학회회보」도 1955년 8월 발행의 제25호가 실질적인 종간호가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학회는 연구회적 활동에 대해 반드시 활발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에 큰 공헌을 이루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4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역사학·문학·언어학·문화인류학·민속학 등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연구자를 규합한 것이다. 특히, 모임장소가 적은 문학·어학 연구자에게 본회의 존재는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

둘째, 연차 연구 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발표의 장소를 계속해서 확보해 온 것이다. 특히, 조선사연구회가 발족하기 이전의 1950년대의 본 대회는 일본에서 유일한 전국 레벨의 한국사 연구 발표의 장이었다.

본 대회는 1950년 10월 발회식을 제1회로 간주하여 매년 10월, 기본적으로 텐리대학을 會場으로서 강연과 개별 연구 발표라고 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그 회수는 50회를 넘었다.

셋째, 학술잡지 『조선학보』의 발행이다. 이 잡지는 1951년 5월에 창간되어 계간잡지로서 연간 4권씩이 간행되고 있어 얼마 안 되는 전문 학술잡지로서 귀중한 기능을 이루어 왔다. 통산 간행수는 2004년에 190집을 넘었으며, 해외에도 넓게 배포되고 있다.

넷째, 한국학계와의 교류이다. 조선학회는 연차 대회의 강연자 및 연구 발표자로서 매회, 한국으로부터 역사학·언어학·문학 등의 연구자를 초빙해, 그 발표를 들음과 동시에 일본의 연구자와의 교류 장소를 제공해 왔다. 제반의 사정으로부터 일·한의

교류가 아직 변성하지 않았던 1970년대까지 그 역할은 큰 것이었다.

### b. 조선사연

1959년은 재일 한국 조선인의 북한(조선인민공화국)으로의 이른바 「귀환」이 개시된 해이다. 8월, 일·조 협정이 체결되어 12월에 나이가타항(新潟)에서 첫 선박이 출항했다. 조선사연구회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젊은 세대들에 속하는 일본인과 재일 한국 조선인의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 결성되었다.

1959년 1월, 末松保和 · 田中直吉 · 旗田巍 3명을 중심으로 도쿄 칸다의 메이지 대학에서 조선사연구회 발회식이 거행 되었다.<sup>(25)</sup> 출석자는 약 50명으로 결코 많은 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9월 당시의 개인 회원이 53명(그 밖에 단체 회원 1)이므로 회원의 대부분이 출석한 것이다. 당시의 열기가 전해져 오는 숫자이다.

조선사연구회는 당초 독립한 학회는 아니고, 역사학 연구회라고 하는 전국 학회의 한 부문이라는 형태로 출발했다. 이 때문에 1963년까지 4년간은 독자적인 임원이나 회칙 등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쨌든, 한국사 연구를 위해서 공통의 장소를 만들려는 의욕만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이 조선사연구회 별쪽 당시의 특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있다.

첫째, 일본인과 재일 한국인이 함께 대등한 입장에서 참가한 것이다. 1959년 9월 당시의 회원 53명의 구성을 보면, 일본인 30명에 재일 한국 23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인과 재일 한국인의 대등이라고 하는 원칙은 철저하였고, 간사 수에 대해도 처음에는 양자 1명씩, 후에 양자 2명씩으로 어디까지나 동수로 하고 있었다.

둘째, 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중시한 것이다. 후에 정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회원 자격은 「본회의 강령에 찬성하는 사람」(회칙 제3조)으로서 거의 제한 같은 것을 두지 않았다. 누구라도 입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학교 교육 경력을 중시하려고 한 조선학회와는 대조적이다. 그 강령은 이하와 같이 선언하고 있다.

1. 우리는 조선사의 과학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2. 우리는 조선사의 연구를 통해서, 일본·조선 양 민족의 우호 친선을 목표로 한다.
3. 우리는 종래의 조선사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조선 사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4. 우리는 민주적으로 회를 운영하며 내외의 연구 단체 및 연구자와의 교류를 시도한다.

이 강령은 1963년 11월에 개최한 제1회 대회에서 역사학 연구회로부터 독립을 선

언했을 때에 회칙과 함께 심의 결정한 것이다.<sup>(26)</sup> 정치단체나 노동조합처럼 강령이 있으며, 게다가 그 중에 「일본·조선 양 민족의 우호 친선을 목표로 한다」라고 있는 것은 학회라고 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조선사연구회 회원의 의식 그 자체이다. 「종래의 조선사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민주적으로 회를 운영」한다고 선언했다는 것에 戰前의 연구 비판과 반성 위에 새로운 연구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여진다. 이 강령은 이 후, 긴 시간 동안 조선사연구회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셋째, 능동적인 연구 활동을 중시한 것이다. 그것은 단적으로 월례연구발표회나 연차연구대회의 개최, 혹은 출판 사업 등으로 볼 수가 있다.

월례 연구 발표회는 1959년 1월 31일의 발회식이 제1회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음 2월 21일에 열린 제2회부터 개시되었다.<sup>(27)</sup> 이때는 재일 한국인 연구자 강덕상의 연구 「新式貨幣發行章程의研究」와 山辺健太郎의 사료 소개 「新發見의 甲申日錄寫本에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이 후, 연차대회가 열리는 10월을 제외하고 거의 빠짐없이 매월, 도쿄에서 개최되고 있어 통산 회수는 벌써 500회에 미치고 있다.

1965년 4월에는 관서(關西) 부회가 발족해 도쿄 본부에 있던 관동(關東)부회와 아울러 동서 2부회제가 되었다.<sup>(28)</sup> 관서부회 발족 당일, 제1회의 연구 발표로서 井上秀雄「古代日朝關係」가 있었다. 이후, 8월과 대회 개최의 10월을 제외하고 연간 10회의 페이스로 월례회가 개최되어 그 통산 회수는 400회에 미치고 있어 관동·관서 양 부회를 합하면 1000회 가까운 수가 된다.

연차연구대회는 조선사연구회 발족 5년째가 되는 1963년에 개최된 제1회부터, 2004년 10월 개최된 제41회 대회까지 회 내외의 문제에 의해 중지된 1969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어 많은 한국사 연구자·교육자·학생·시민뿐만 아니라, 일본사·중국사 등 주변 지역사의 연구자도 모이고 있다.

연차 대회는 당초, 본부·관동 부회가 있는 도쿄를 회장으로 하고 있었지만, 후에 관동·관동·관서라고 하는 순서로 교대 개최하게 되어, 현재도 거의 그 형식이 답습되고 있다.

본 대회는 제1일째가 강연, 제2일째가 공통 테마에 의한 심포지엄 형식을 취해 행해지고 있다. 심포지엄은 4명 정도의 보고자에 의한 연구 발표에 근거해 보고자와 회장 참가자가 활발한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것에 특색이 있다. 공통 테마는 꽤 장시간에 걸친 간사회의 토의를 거쳐 설정된다. 그런 만큼 테마를 보면, 그 당시의 조선사연구회에 모인 사람들의 연구적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조선사연구회의 대회 테마는 특정의 시대로 한정하는 일 없이, 가능한 한 전시대에 걸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는 「日朝關係의 史的再檢討」(1964년), 「朝鮮社會의 歷史的發展」(1966년), 「朝鮮과 東아시아·世界」(1970년) 등, 「재검토」「세계」「발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띈다. 강령에서 말하는 「조선사의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한국사에 대한 「정체」적인 평가를 「재검토」하여, 「세계」사의 발전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역사사회인 것을 주장 하려는 의지가 엿보여진다.

이것이 1980년대 후반이 되자 「근대」 개념(1988년)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더욱이 1990년대에는 「도시론」(1991년), 「전통 문화의 “발견”」(1996년), 「경계」(1997년), 「공공성」(1998년) 등으로 테마가 전개해 간다. 한국사 연구에 대해서 타분야의 역사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해 전후 역사학이 정립 해 온 재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가하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사연구회는 연구 활동과 함께 사회 활동에도 활발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양한 기회에 성명이나 결의를 표명해 왔다는 것이다. 『조선사연구회회보』 각 호에 의하면, 전부 다음과 같이 14회를 확인할 수가 있다.

- 1970년 10월 재일 조선인 조선국적으로의 생신을 지지하는 성명
- 1971년 4월 출입국관리법안에 반대하는 성명
- 1971년 10월 재일조선인 조국에의 자유왕래 실현을 요청한 결의
- 1973년 5월 출입국법안에 반대하는 성명
- 1974년 9월 재일조선인에의 새로운 탄압의 획책에 반대한 성명
- 1979년 10월 크리스천·아카데미에 관한 성명
- 1980년 9월 한국의 정세에 관한 성명
- 1982년 9월 교과서 문제에 관한 성명
- 1982년 10월 교과서 검정 문제에 관한 교사·학생·시민의 성명
- 1984년 8월 일본정부의 한국 대통령 방일 초청에 대하여
- 1988년 5월 KAL 사건을 계기로 한 조선인 박해에 관한 성명
- 1995년 11월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 설립에 대한 요망  
(역사학 연구회 등 연명)
- 2000년 5월 石原都知事 발언의 역사인식의 잘못을 비판하는 성명
- 2001년 3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교육의 현장에서 이용  
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역사학 연구회등과 연명)

이상과 같이 1970년대까지는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발언이 눈에 띄지만, 1982년에 이른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난 이후,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계 기술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행하고 있다.

끝으로 출판 활동에 대해 언급해 두겠다. 현재까지 조선사연구회가 간행한 출판물은 이하의 7점이다.

1966年 『朝鮮史入門』 太平出版社

1974年 『朝鮮の歴史』 三省堂

1974年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6年 『朝鮮の歴史をどう教えるか』 龍溪書舍

1981年 『新朝鮮史入門』 龍溪書舍

1994年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研究文献目録』 緑陰書房

1995年 『新版・朝鮮の歴史』 三省堂

모두 연구회 회원이 분담·집필하고 있으며, 연구회가 총력을 기울여 작성하고 있다. 출판된 것은 통사·연구입문·문헌목록이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한 불가결의 기초적 도구이며, 학생·교육자·연구자에게 안내로서 활용 받았다. 특히 旗田巍, 『朝鮮史』(岩波書店, 1950년) 이외에 통사·개설서가 부족한 가운데 출판된 『朝鮮の歴史』는 가장 신뢰해야 할 한국 통사로서 넓게 받아들여졌다. 20년을 거쳐 『朝鮮の歴史』 전면 개정판으로서 출판된 『新版・朝鮮の歴史』도 현재 가장 표준적인 한국 통사라고 하는 평가를 얻고 있다.

## 제2장 연구와 교육의 현상

### 1. 대학

20세기말에는 한국관계 과정의 개설이 계속되었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도 그 경향은 계속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004년 4월, 도쿄대학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동 대학 교양학부에, 生越直樹(언어학)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연구과 한국조선지역 문화연구코스가 개설되었다. 深川由紀子(경제학), 木宮正史(정치학), 有田伸(사회학) 등이 소

속해 있다. 기본적인 수비 범위는 현대 사회이다. 또 이것과 동시에 동 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에 吉田光男(근세사)을 중심으로, 대학원 레벨에서는 일본에서 첫 한국학의 종합적인 전문연구 교육조직으로서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이 개설되었다. 한국조선역사사회, 한국조선언어사상, 북동아시아문화교류 등 3개의 전문 분야로 나누어져 服部民夫(사회학), 村井章介(중세 동아시아 관계사), 川原秀城(철학), 早乙女雅博(고고학), 福井玲(언어학), 六反田豊(중·근세사), 本田洋(문화인류학) 이외에 외국인 객원 교수가 소속해 있다. 향후 더욱더 전문 과정 개설의 움직임이 진전되어 같았다고 전망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대학에서 조직 개편이나 과정 명칭 변경을 했다. 현재의 한국 연구 전문 과정을 개설순서에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말미 팔호안의 숫자는 객원교수 · 외국인 교사도 포함한 전임 교원 수를 나타낸다.

1950年 : 天理大學 外國語學部 아시아學科 韓國朝鮮語코스(4)

1963年 : 大阪外國語大學 外國語學部 아시아 I 講座 東아시아地域文化研究專攻 朝鮮語專攻(4)

1974年 : 九州大學 文學部 人文學科 朝鮮史學專攻(3)

1977年 : 東京外國語大學 外國語學部 東아시아課程 朝鮮語專攻(7)

1978年 : 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語學文學코스(2)

1989年 : 神田外語大學 外國語學部 韓國語學科(5)

1994年 : 熊本學園大學 外國語學部 東아시아學科 韓國語코스(4)

1998年 : 福岡大學 人文學部 東아시아地域言語學科 韓國코스(3)

1999年 : 九州大學韓國研究센터(2)<sup>(30)</sup>

2002年 : 東京大學 教養學部 地域文化研究學科 韓國朝鮮地域文化研究코스(4)

2002年 : 東京大學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 韓國朝鮮文化研究專攻(9)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는 국립대학법인(2004년 3월까지의 국립대학) 5교, 사립대학 4교에 한국연구 교육 전문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전장에서 본 것처럼 이 중에서 텐리대학, 오사카외국어대학 · 큐슈대학학 · 도쿄외국어대학 · 칸다외국어대학 · 도쿄대학 등의 6교에서는 역사학의 전임교원이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그 외에 충체적인 전국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좁은 시경이지만, 히토츠바시(一橋)대학 · 와세다(早稻田)대학 · 메이지(明治)대학 · 죠오치(上智)대학교 · 토카이(東海)대학 · 센슈우(専修)대학 · 동경도립대학 · 교토대학을 시작해 전국 50이상의 대학이

전임을 두고 한국사 관계 강좌·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것 같다. 종래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대학에서의 한국사 연구 교육의 체제는 충실되어 오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근대사이며, 중·근세사는 반드시 많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현황이다.

대체로 일본의 한국사중·근세사가 어떠한 양적 경향에 있는지, 조선사연구회의 연구논문DB(<http://www.zinbun.kyoto-u.ac.jp/~mizna/sengo/> 후술)에 의거해 1970년 이후 10년마다(2000년 이후는 4년분만)의 시기별 논문수를 열거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연대	중·근세①	연평균	전체②	①/②×100(%)
1970 ~ 1979	233	23.3	2706	8.6
1980 ~ 1989	443	44.3	4017	11.0
1990 ~ 1999	666	66.6	5645	11.8
2000 ~ 2003	405	101.3	4386	9.2

이 숫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 것을 단순하게 합계했을 뿐이며, 반드시 학술적인 것만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경향을 보기 위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보이는 바와 같이 중·근세(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고려·이조로 되어 있다)는 전체의 10% 전후로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중·근세사 연구가 일본에서 번성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대학에 개설된 강좌·강의는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을 연평균 논문수를 보면, 현저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 197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면 4배가 넘어 간다. 이전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년 한국사에 관한 대학교육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바뀌어 오고 있다. 한국어 강좌수와 수강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몇 년 전부터 각 대학에 있는 한국어 수강자 수는 해를 거듭해 증가해 오고 있지만, 최근 그 기세가 더욱 더 가속하고 있어, 교원이나 대학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이다. 이 배경으로서 젊은 층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지적할 수가 있다. 일본의 젊은 층에게 있어 한국은 긍정적으로 파악되는 존재로 변모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중·근세사의 이해나 연구로 유도하는 방책이 긴요한 과제로 부상해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학회

현재, 한국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전국 학회에는, 조선학회, 조선사연구회, 한국·조선문화연구회 등 3개가 있다. 중·근세사만의 학회 조직은 없다.

### 1) 조선학회(본부:텐리대학)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기관지로서 연 4회 발행되는 학술잡지 『조선학보』는 190집을 넘어 2006년도에는 200집에 도달한다. 인문과학계를 중심으로서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모든 분야의 연구자가 모이는 일본 최대의 학회이다. 회원은 600명 이상에 달해, 한국 거주자를 시작으로 해 외국 거주자도 많다. 전문 분야가 판명되는 588명 가운데, 최다는 역사학(29.1%)으로, 언어학(28.7%), 문학(15.6%), 고고학(6.0%)이라고 하는 순서로 계쏙되고 있다.<sup>(32)</sup> 또한 역사학에서는 비교적으로 전근대사가 많은 듯 하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연구 대회는 제1분과회(어학), 제2분과회(문학), 제3분과회(역사학 그 외)의 3 분과회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대회는 제1일째가 강연, 제2일째가 국내외의 연구자에 의한 개별 발표이다. 대회는 통상, 텐리대학을 회장으로서 개최되지만, 2004년에는 큐슈대학에서 개최되었고, 토야마대학(1996년) 이래, 8년 만에 텐리 지역을 벗어났다.

한국으로부터 강연자·발표자 초빙은 계속하고 있으며, 또 한국으로부터 참가하는 개별 연구 발표자나 청중의 수도 많다. 그것을 반영해 「조선학보」에도 한국인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 2) 조선사연구회

(본부:히토초바시대학, <http://wwwsoc.nii.c.jp/chosenshi/index.html>)

일본에서 유일한 한국사 전문의 전국학회이며, 한국사 연구자·대학원생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관동 부회(본부내)·관서부회(교토대학)의 2부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각각의 부회가 매월, 월례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월례회에서는 짧은 연구자를 중심으로서 최신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원칙으로서 관동 부회2회·관서부회 1회라고 하는 교대 개최 방식이 계쏙되고 있어 2004년은 도쿄

경제대학에서 제41회 대회가 개최되었지만, 제42회가 되는 2005년은 관서지역에서 개최된다.

역대의 회장은 이하와 같다.

青山公亮(1963~1971年, 中世史)

旗田巍(1971~1989年, 古代中世史)

矢澤康祐(1989~1994年, 近代史)

濱中昇(1994~1997年, 中世史)

宮田節子(1997~2000年, 近代史)

北村秀人(2000~2004年, 中世史)

糟谷憲一(2004~現在, 近代史)

매년 1회 기관지로서 학술잡지『조선사연구회논문집』을 발행하고 있다. 이 잡지는 2004년 10월 발행호로 42집이다. 또 연 4회 발행되는『조선사연구회회보』도 150호를 넘어 연구회 활동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사 연구나 학계를 둘러싼 정보를 싣고 있다.

현재의 회원은 관동 약 350명 및 관서 약 150명으로 합계 약 500명이 된다. 소속·직업이 관명되는 사람을 보면, 대학교원 44.4%(비상근을 포함하면 52.9%)와 학생(21.5%)에 이어, 많은 것이 초중고 교사(10.5%)이다. 이것이 본회의 회원 구성상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sup>(33)</sup>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한국사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는 점과 그들이 조선사연구회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본 학회의 하나 더의 특징은 젊은 연구자가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1959년의 발족 시부터 젊은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현재의 간사에도 대학교원과 함께 많은 대학원생이 취임하여 그것이 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다. 현재, 연구와 교육의 최전선에 서있는 대학교원·연구자의 대부분이 간사 경험자인 것이 조선사연구회의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 3) 한국·조선 문화 연구회

(본부 : 도쿄대학, <http://www007.upp.so-net.ne.jp/askc/>)

2000년 10월에 발족한 새로운 전국 학회이다. 「현장성」과 「비경계성」의 2개를 키워드로서 역사학·문화인류학·민속학·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 제분야의 연구자가 모여 결성되었다. 회원의 대다수는 한국에 유학이나 조사 등으로 장기 체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를 연구 언어로서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배경에는 198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한국사 연구에 생긴 큰 변화가 있다. 그것은 한국어를 습득하여 한국에 유학 혹은 조사 등으로 장기 체재한 「현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급증이다.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는 현지 체재조사는 당연한 일로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 무렵이 되자 그것이 역사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이전에도 한국에 유학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다지 수는 많지 않았고, 또 현지조사도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나 학생이 많게 잡아, 한국은 사료 속에서의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가 되자, 크게 양상이 바뀌어 대거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사료 조사나 현지조사는 물론, 대학에 유학하여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의 연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출현했다. 거의 일본어만을 연구 언어로 삼아왔던 경성제국대학의 역사학 연구자들과는 한국에 대한 대처 자세가 완전히 정반대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의 변화이다. 특히 그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중·근세사 연구자들이다. 중·근세사는 연구 사료의 대부분이 한문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도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연구 발전이나 활발한 사료 벌굴 등에 큰 자극을 받아 한국어 회화력을 가지고 한국에서 연구 조사 활동을 전개하거나 한국인 연구자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본 연구회의 회원수는 약 200명으로 전문 분야별 구성에서는 (문화·사회)인류학 31.6%, 역사학 24.3%외, 사회학·종교학·음악학·미술학 등의 순서가 된다.<sup>(34)</sup>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간취할 수 있다.

본 연구회는 매년 10월에 연차연구대회를 개최해 나아가 연간 3-4회의 예회에 의해 연구 발표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 대회는 자유논제에 의한 개별 연구 발표와 공통 논제에 의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논제<sup>(35)</sup>는 회의 성격을 반영해, 「교차 하는 필드」(2000년) 등 분야 획단적으로 「현장성」과 「비경계성」을 중시한 문제 설정이 현저하다. 다른 분야의 연구자가 연구 대상인 한국에 대하여 각각의 연구 시각·방법론을 가지고 분석하고 학제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려는 실험을 행하고 있다. 예회 발표도 인류학·역사학·사회학·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로 신진 연구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매년 1회 기관지로서 학술지 『한국 조선의 문화와 사회』를 간행하고 있어, 2004년도에 3호가 된다. 이 잡지는 연구논문·연구 노트 외에 연구에세이, 전람회평, 한국학 회의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켜, 한국 문화 연구에 관한 정보 발신을 강하게 의식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 희보로서 『한국·조선 문화 연구회 통신』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역대 회장은 아래와 같다.

伊藤亞人(2000~2002年, 文化人類學)

鳴陸奧彥(2002~2004年, 文化人類學)

吉田光男(2004~現在, 歷史學)

#### 4) 관련 학회

이상의 3 학회 외에 역사학과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학회로서 현대 한국 조선학회와 조선어연구회의 2개가 있다.

현대한국조선학회(본부: 도쿄대학, <http://www.meijigakuin.ac.jp/~askj/front/>)는 현대의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회이다. 정치학 · 경제학 · 사회학 · 국제관계론 등, 주로 사회과학계의 연구자가 모여 결성되어 회원은 약400명이다. 창립은 우연히 한국 · 조선문화연구회와 같은 2000년 10월이며, 게다가 명칭에 한국과 조선을 병칭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되고 있다. 기관지로서 학술지 『현대한국조선연구』를 연1회 발행하고 있다.

조선어연구회(본부: 도쿄대학, <http://www.u-tokyo.ac.jp/tyosengo/>)는 1983년에 창립된 한국어 연구자 · 교육자의 연구 조직으로 회원은 약300명이다. 매월의 예회와 연1회의 대회에서는 언어학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교육 연구에 관해서도 활발한 연구 발표를 실시하고 있어 예회 개최 수는 별씨 200회를 넘고 있다. 기관지로서 학술지 『조선어연구』를 연 1회 발행하고 있다.

### 제3장 한국사 연구 관련 정보

현재의 일본에서 입수 가능한 일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서적을 중심으로서 보기로 한다.<sup>(36)</sup> 중 · 근세사만 특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전시대를 대상으로 한 것을 취급하게 된다.

## 1. 통사 · 개설서

① 朝鮮史研究會編 『新版・朝鮮の歴史』(三省堂, 1995年)

조선사연구회가 편자가 되어 연구회 소속의 전문가 17명이 분담 집필한 통사 · 개설서이다. 중 · 근세사 부분은 濱中昇 · 吉田光男 · 寺内威太郎 · 井上和枝 · 鶴園裕가 집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무렵 일본 학계에서의 정설적인 학설에 의해 정리한 것으로 표준적인 통사로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초중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種書가 얼마 없는 가운데 교사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② 武田幸男編著 『朝鮮史』(山川出版社, 2000年).

세계 각국사 시리즈의 1권이며, 각 시대의 전문가 6명이 분담 집필한 통사 · 개설서이다. 일본의 연구자가 집필한 개설서로서는 가장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다. 중 · 근세사 부분은 北村秀人 · 糟谷憲一 두 사람이 집필하고 있어, 개략의 지식을 얻는 것과 동시에 20 세기말까지 연구의 도달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정평이 있는 통사가 일본어로 번역되고 있다.

③ 韓永愚(吉田光男譯) 『韓國社會の歴史』(明石書店, 2003年)

근세사 연구자 한영우의 통사이다. 초판은 1997년에 출판되어 최근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획득했다고 말해지는 통사이다. 정치 ·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면에 자세한 곳이 특색이다. 최신의 연구에 대한 안배가 두루 미치고 있어 한국에서의 연구 도달점을 개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중 · 근세 특히 근세사 부분 내용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 외, 1970년대 후반이라 약간 출판 연대는 오래되었지만, 한국에서 표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통사 2권을 번역으로 읽을 수 있다.

④ 李基白(武田幸男他譯) 『韓國史新論』(學生社, 1979年)

2004년에 고인이 된 고대사 연구자 이기백의 통사이다. 원본 초판은 1967년에 서울의 일조각으로부터 출판되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필자의 전문과의 관계로부터 전근대사, 특히 고대사에 역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번역 출판 후에도 몇 번이나 개정판이 출판되어 그때마다 새로운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⑤ 한우근(平木實譯) 『韓國通史』(學生社, 1976年)

근대사 연구자 한우근의 통사이며, 원본 초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다. 이기백의 ④와 함께, 한국에서는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필자의 전문과의 관계로 인해 근세사와 근대사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 2. 사 전

① 伊藤亞人·大村益夫·梶村秀樹·武田幸男編 『朝鮮を知る事典』(平凡社, 1986年)

지역을 아는 사전 시리즈의 1권이다. 각 분야의 연구자가 책임 집필하고 있어, 역사학·문화인류학·지리학 등 한국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② 木村誠·吉田光男·趙景達·馬淵貞利編 『朝鮮人物事典』(大和書房, 1995年)

전후 처음 출판된 한국사에 관한 인명사전이다. 일반의 인명사전과 달리, 시대별·분류별로 기술되고 있어 旗田巍나 이기백 등 근현대의 한국사 연구자에 대해서도 항을 만들고 있다.

## 3. 연구 문헌 목록

① 末松保和編, 『朝鮮研究文獻目錄1868—1945〈單行書編〉』(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附屬東洋學文獻센터, 1970年)

② 末松保和編, 『朝鮮研究文獻目錄1868—1945〈論文·記事編〉』(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附屬東洋學文獻센터, 1972年)

①②는 모두 메이지 시대이래, 1945년까지 일본어로 쓰인 한국에 관한 연구 문헌 목록이다. 역사학 이외에 인문과학·사회과학으로부터 자연과학까지 넓은 분야에 걸치고 있어 매우 방대하며 연구범위가 넓은 목록이다. 다른 목록류 등에서 채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원본 확인은 되어 있지 않다. 양자 모두 1980년에 浚古書院으로부터 복각판이 출판되고 있다.

③ 朝鮮史研究會編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研究關係文獻目錄』(綠陰書房, 1994年)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에서 출판된 저서·논문의 목록이다. ①②와 합쳐진다면, 메이지시대부터 1990년대 처음까지 일본어로 작성된 한국사 연구를 망라적으로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출판수가 적었던 1960년대까지는 관계 서적·논문에 대해 망라적으로 채취되고 있지만, 그 이후는 학술 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수록 수는 단행서가 3377권, 잡지 등의 논문이 9559편이지만, 거의 모두 원본 확인을 실시했기 때문에 매우 신뢰성이 높다.

#### ④ 『朝鮮史研究會論文集』「文獻目錄」

일본 최대로 한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문헌 목록이다. 본 자료는 매년 1회씩 발행되고 있어 전년 1년간에 일본에서 발표된 한국사의 연구서·연구논문을 망라적으로 모으고 있다. 조선사연구회의 신진 간사가 원본을 확인하면서 작성해, 수록 누락에 대해서도 다음 해에 자세한 보유를 불이는 등, 꼼꼼하고 치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 본 목록을 기초로서 ③이 편찬 되었다.

현재는 <http://www.zinbun.kyoto-u.ac.jp/~九州大學mizna/sengo/>로 검색할 수가 있다. 수록 수는 2003년 12월 말까지로 단행본 약 5700권, 잡지 논문 약 19000편이 된다.

#### ⑤ 『史學雜誌』「回顧と展望」

매년 5월호로 일본에서 전년에 발표된 역사 연구를 지역이나 분야별로 총괄하고 있다. 한국사에 대해서는 고대·중·근세·근현대의 3 분야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어 최근의 연구 경향과 주된 연구서·연구논문을 아는 데 매우 적합하다. 그 중에서 1949년부터 1985년까지의 것을 정리해, 『日本歷史學界の回顧と展望・16朝鮮編』(山川出版社, 1988年)이 출판되고 있다.

덧붙여 『사학잡지』 각 호의 말미에는 문헌 목록이 첨부 되고 있어 그 동양사편에는 최신의 한국사 연구가 게재되고 있다. 반드시 망라적이지 않지만, 속보성이 높은 정보이다.

## 4. 연구자명감

어떤 연구자가 일본에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財團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編 『日本における韓國・朝鮮研究研究者ディレクトリ(2004年調査)』

(同基金, 2005年)가 있다. 연구자에게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연구영역·시대·대상지역·연구과제·주요 실적 이외에 메일주소나 홈페이지 URL 등까지 기재하고 있다. 본서가 기재하는 한국 관계 연구자는 1079명에 이르며, 역사학을 비롯하여 한국연구자에 관한 최대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일본에서의 한국·조선 연구 데이터베이스 연구자 디렉터리 검색』으로서 인터넷에도 공개되고 있어 그 기금의 홈페이지(<http://www.jkcf.or.jp/>)로부터 이용할 수가 있다.

## 【주】

- (1)拙稿 <韓國朝鮮に向かって風が吹く>(《史學雜誌》112-7, 2003年6月) 35~36頁
- (2)불어·독어·노어·清語(중국어)에 이어 제5번째의 학과로서 개설되었다. 고등상업학교 부속 외국어학교가 된 1897년에는 이것을 한국어학과라고 개칭했다. 동교가 1899년에 도쿄외국어학교로서 다시 독립한 후, 조선이 식민지화 된 다음 1911년에는 조선어학과로 고쳐져 1919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 조선어부로 고쳐졌다. 그리고 1927년 3월에 폐지되었다. 石川遼子, <地と民と語>の相剋—金澤庄三朗と東京外國語學校朝鮮語學科>(《朝鮮史研究會論文集》35, 1997年10月)에 의하면, 벌써 1916년에 조선어학과의 학생 모집은 폐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식 폐지까지의 10년간 실질적으로는 폐지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학과 명칭이 조선어→한어→조선어로 자꾸 변경된 것은 1897년의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의 전환, 1910년의 식민지화에 의한 대한제국 폐절과 지역명칭으로서의 조선 성립이라고 하는 정치적 변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나아가 식민지화가 진행되자 교육 그 자체가 정지되어 경성제국대학 본과 개설의 다음 해인 1927년에는 학과 그 자체가 폐지되어 버렸다. 일본에서의 한국어·조선어 교육에는 정치적 그림자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 (3)《官報》623号(1914年8月27日付)
- (4)《東京帝國大學一覽(昭和十四年)》에 의하면, 池内宏 褪官 후는 고고학의 三上次男이 강사로서 조선사 강좌를 담당했다. 또한, 池内の 平塚에 筑徳忠 <池内宏>(江上波夫編《東洋學の系譜(第2集)》, 大修館, 1994年)이 있다.
- (5)田中俊明 <今西龍>(江上波夫編《東洋學の系譜(第2集)》, 大修館, 1994年)61~62頁. 또, 今西春秋 今西龍小伝》(國書刊行會, 1970年)参照. 《京都帝國大學一覽(自大正三年至大正四年)》(1915年1月)에 의하면, 1914년도에는 조선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1913년도에 강의를 실시하고 있었는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 (6)경성제국대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馬越徹 《韓國近代大學の成立と展開—大學モデルの伝播研究—》(名古屋大學出版會, 1995年)第4章 <日本型植民地大學としての京城帝國大學—「帝大モデル」の移植過程>이 자세하다. 또, 永島廣紀 <日本統治期の朝鮮における〈史學〉と〈史料〉の位相>(《歷史學研究》795, 2004年11月)이 식민지 시대의 한국사 연구 상황을 정리하면서 경성제국대학 사학과의 조직·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7)이하의 기술은 《京城帝國大學一覽(自大正十五年至昭和二年)》(1927年4月)에 의한다.
- (8)永島廣紀 <日本統治期の朝鮮における〈史學〉と〈史料〉の位相>(前掲, 19頁)은 1943년 9월에 졸업한 16기생까지 한국사를 주제로 했다고 확인되는 졸업논문이 選科生까지 포함해 30개 있었다고 한다.
- (9)今西龍이 재직한 채 사망하여 小田省吾가 정년 퇴관 한 후, 1933·34년도에는 조선사편수 회 편수관 中村榮孝와 末松保和가 강사로서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 (10)今西龍은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취임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사」 담당자로서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교수도 겸임했다(《京都帝國大學一覽(昭和二年)》).
- (11)田川孝三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と朝鮮文化>(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集委員會編《紺碧遙かに》(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年). 또한 永島廣紀 <日本統治期の朝鮮における〈史學〉と〈史料〉の位相>(前掲)도 참조.

- (12) 『京城帝國大學一覽(自大正十五年至昭和二年)』. 이러한 인물의 일부에 대해서는拙稿 <韓國朝鮮に向かって風が吹く>(前掲)에서도 소개했다.
- (13) 田川孝三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と朝鮮文化>(前掲)의 소개를 기초로 해보면, 다음과 같은 법문학부 교원을 지적할 수가 있다(팔호 안은 강좌명). 鳥山喜一(東洋史學), 藤塚鄰(支那哲學), 安倍能成(哲學史哲學), 松月秀雄(教育學), 黑田亮(心理學), 大内武次(統計學), 藤田東三(民法民事訴訟法).
- (14) 『京城帝國大學一覽(昭和十七年)』.
- (15) 주 13 계시자 이외에 한국 연구에 관련된 인물로서는 山田文雄(經濟學), 津曲藏之丞(民法民事訴訟法), 松岡修太郎(憲法行政法), 森谷克己(社會政策), 内藤吉之助(法制史), 靜田均(經濟政策), 小田忠夫(財政學), 伊藤俊夫(農業政策), 高木市之助(國語國文學), 阿部吉雄(支那哲學) 등을 들 수 있다. 田川孝三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と朝鮮文化>(前掲) 참조.
- (16) 金容德<京城帝國大學(1924~45)の教育と韓人學生>(宮嶋博史·金容德編『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Ⅱ』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5年)에 의하면 醫學部와 豫科에 합쳐서 한국인 교수 조교수 3명이 단기간만 재직했다(31頁). 영어·불어·노어·支那語(중국어)·회령어·조선어 등의 외국어 과목에서는母語를 말하는 사람에게 담당시키고 있었지만, 모두 외국인 강사로서 채용되고 있었다. 한국인 강사로 전공과목을 담당한 것은 이하의 4명이었지만, 1945년에 경성 제국대학이 문을 닫을 때까지 끝내 전임 교원으로서 채용된 일은 없었다.
- 魚允迪(1926~33年) 朝鮮禮俗史, 朝鮮語, 朝鮮文學  
 鄭万朝(1926~35年) 朝鮮禮俗史, 朝鮮語, 朝鮮文學  
 金台俊(1940年) 朝鮮文學  
 權純九(1936~42年) 朝鮮式漢文
- (17) 中村榮孝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の事業>(『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年).
- 또한 동회의 공식 기록을 정리한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編『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同會, 1938年)에 의하면, 동회는 1922년 창설의 조선사 편찬 위원회에 의한 준비 작업을 거쳐, 1925년 4월, 정식으로 발족했지만, 역대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위한 문화적 기관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발족 당시 고문에 이완용·박영효·권중현이라고 하는 구한국 정부의 실력자를 두어, 총독부 修史官 이능화, 중추원참의 어윤적 등의 한국인 유식자나 교토제국대학 조교수 今西龍, 총독부 사무관 小田省吾 등이 위원이 되고 있었다. 永島廣紀 <日本統治期の朝鮮における〈史學〉と〈史料〉の位相>(前掲)이『조선사』 편찬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사 편수회의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참조 바란다.
- (18) 조선사편수회에서는,『조선사』 편찬의 기초 작업으로서 사료 탐방·수집·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수집한 것은 한국사료 만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 중·근세 일·한관계사 사료의 一大宝庫인 나가사카(長崎) 현 대마도의 종가(宗家) 사료의 수집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종가 사료의 일부로 이즈하라와 도쿄에 보존되고 있던 주로 17 세기 이후의 고기록 3576권, 고문서 64169통, 고지도 36매, 회화 18권·53매라고 하는 대량의 사료가 1926년, 黑板勝美를 통해 본회에 반입되었다. 종가사료의 대량 반입에 의해 조선사편수회는 나가사카현립 쓰시마(對馬) 역사 민속 자료관, 국립국회도서관, 게이오(慶應)대학

도서관,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와 함께 중·근세 일·한관계사 사료의 宝庫가 되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 소재의 것은 한국국사편찬위원회가 계승해 관리하고 있다. 이전 사료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는 田代和生 <對馬・宗家記錄の由來>(《宗家記錄と朝鮮通信使展—江戸時代の日朝交流》, 朝日新聞社, 1992年) 참조.

본회는 또, 수집사료 중에 귀중한 것을 추출해 고문서류는 조선 사료집진 3권으로서 또 《高麗史節要》, 《海東諸國紀》 등의 고문헌류는 조선 사료총간 21종으로서 차례차례 간행해 갔다.

(19) 修史官·修史官補·축탁으로서 근무한 것은 이하의 사람들이다.

<修史官·修史官補> 稲葉岩吉, 藤田亮策, 洪憲, 中村榮孝, 末松保和, 葛城未治, 申夷鎬, 高橋琢二, 李丙燾, 鶴見立吉, 潮田富貴藏, 萩原秀雄, 田川孝三, 李鍾明

<嘱託> 稲葉岩吉, 笹川種郎, 洪憲, 濑野馬熊, 岩谷武市, 川口卯橘, 濱江桂藏, 中村榮孝, 今西龍, 朴容大, 末松保和, 李丙燾, 陸鍾允, 權重翼, 金台斗, 趙重觀, 崔南善, 申夷鎬, 萩原秀雄, 具贊書, 趙漢稷, 尹培均, 今村鞆, 國田庸次郎, 前田耕造, 田保橋潔, 田川孝三, 周藤吉之, 丸龜金作, 黒田省三, 石原俊雄, 松岡巖, 田中半次郎, 藤井誠一(밑줄을 그은 것은 후에 修史官·修史官補로 취임한 사람)

(20) 조선학회 보존 자료에 의하면 발족 당시(1950년 10월) 임원 진은 다음과 같다.

一, 總 裁	中山正善	天理教眞柱
一, 顧 問	幣原坦	文學博士
	金澤庄三朗	駒澤大學教授文學博士
	池内宏	東京大學名譽教授文學博士
	小田省吾	前京城帝國大學教授
	山田三良	學士院長前京城帝國大學總長法學博士
	滋賀潔	前京城帝國大學總長醫學博士
	山家信次	前京城帝國大學總長工學博士
	安倍能成	學習院大學長
一, 與 與	奥村秀夫天	理大學學監
	辻豊彥	天理教文教部長
	富永牧太	天理大學圖書館長
	東井三代次	衆議院議員陽德社社長
	上原義彥	天理教本部役員
一, 會 長	堀越儀郎	天理大學學長參議院議員
一, 副會長	高橋亨	天理大學教授文學博士
	船田亨二	衆議院議員法學博士
一, 幹事長	石原六三	天理大學教授文學博士
一, 幹事	秋葉隆	愛知大學教授天理大學教授文學博士
	三品彰英	大谷大學教授天理大學講師文學博士
	藤田亮策	東京藝術大學教授
	末松保和	學習院大學教授
	河野六郎	東京文理科大學助教授天理大學講師
	前田利一	外務省朝鮮班長

- |          |          |
|----------|----------|
| (常任)小野清一 | 天理大學事務長  |
| 齋藤辰雄     | 天理大學助教授  |
| 澤田善朝     | 天理教本部勤務  |
| 櫻井義之     | 東京都立圖書館  |
| 關野眞吉     | 學習院大學圖書館 |
- (21) 『朝鮮學會會報』1, 1951年4月, 4頁  
 (22) 『朝鮮學會會報』1, 1951年4月, 4頁  
 (23) 『朝鮮學報』50, 1969年1月, 98頁  
 (24) 『朝鮮學報』50, 1969年1月, 100頁  
 (25) 『朝鮮史研究會會報』1, 1959年8月, 1頁  
 (26) 『朝鮮史研究會會報』7, 1963年11月, 17頁  
 (27) 『朝鮮史研究會會報』1, 1959年8月, 1頁  
 (28) 『朝鮮史研究會會報』10, 1966年3月, 9頁  
 (29) 『朝鮮史研究會會報』에 의하면, 연도마다 공통 테마는 이하와 같다.
- 1963년 없음  
 1964년 일·조 관계의 역사적 재검토  
 1965년 조선사와 역사 교육  
 1966년 조선 사회의 역사적 발전  
 1967년 일·조 관계의 역사적 재검토  
 1968년 「메이지 백년」과 조선  
 1969년 <중지>  
 1970년 조선과 동아시아·세계-조선의 주체적 발전과 국제 조건-  
 1971년 세계사에서 조선, 현대 일본에서의 조선 문제  
 1972년 조선의 문화와 사상  
 1973년 일본에서의 조선사상-일·조 관계사의 재검토-  
 1974년 일본의 교육과 조선 문제-조선 봉건제의 해체 과정  
 1975년 조선사에서의 국가와 재지 세력  
 1976년 근대 조선에서의 민족 운동  
 1977년 조선에서의 역사 인식  
 1978년 조선사의 발전과 국제적 계기  
 1979년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조선의 국가 형성과 동아시아-3·1운동의 역사적 의의  
 1980년 이조사의 여러 문제  
 1981년 조선의 사상과 사회  
 1982년 식민지하 민중의 생활과 투쟁  
 1983년 동아시아에서의 조선사 전개  
 1984년 심포지엄 : 갑신정변 백년  
 1985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과 조선-한일 조약 20년에 즈음해-  
     심포지엄 : 해방 후 40년을 어떻게 볼까  
 1986년 조선 고대사의 생점

- 1987년 조선사에서의 국가와 민족  
1988년 조선에서의 근대 인식의 제상  
1989년 조선에 있어서의 근대로의 이행  
1990년 재검토·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  
1991년 조선 도시론으로의 어프로치  
1992년 조선 현대사에서의 연속과 전환  
1993년 조선 여성사로서의 시점  
1994년 조선사로부터 본 「1894년」  
1995년 「해방」50년-조선의 분단과 통일  
1996년 근대 조선에서의 전통 문화의 “발견”  
1997년 「지역」으로서의 조선-「경계」의 시점으로부터  
1998년 조선에서의 지역사회와 국가-「공공성」의 소재를 둘러싸고  
1999년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제국 지배  
2000년 「고대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 공간  
2001년 조선의 영역관과 자기 인식-전근대와 근대의 접점  
2002년 일·조 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시점  
2003년 학문으로부터 본 근대  
2004년 조선에서의 종교와 국가

(30) 2002년 4월에 학내공동 교육시설로 개되어 전임교원이 배치되었다(1명은 객원).

(31) 小栗章, <日本の大學等と高等學校における韓國朝鮮語教育>(第55回朝鮮學會大會發表資料, 2004年10月)에 의하면, 1995년도에 143교인 한국조선어(원문에서는 한어) 교육 실시 대학은 2003년도에는 335교로 2.34배에 증가해 모든 4년제 대학의 거의 반수에 이르렀다 (18~19 페이지). 수강자수에 대해서는 망라적이고 계속적인 조사가 없지만, 급증의 추세는 각 대학의 교육 담당자 공통의 인식이다. 小栗 논문은 2002~2003년도의 양케트 조사에서 회답을 맨 132대학의 한국 조선어 이수자수가 합계33,552인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小栗논문은 <外國語教育の変化と韓國朝鮮語-學校教育の中にどう位置づけるか>라는 제목으로 《國際文化フォーラム通信65,2005年1月》에 수록.

한편, 모든 국공립대학과 많은 사립대학의 입학시험으로 채용하고 있는 대학입시센터시험에 2002년 1월부터 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가 도입되었다. 그때까지 상당한 수의 사립대학에서는 대학의 독자 판단에 의해 한국어가 시험과목으로서 인정되고 있었지만, 대학입시센터시험에 의한 한국어 시험의 실시는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영어 등과 함께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서 인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강자 수의 증대라는 것에 꽤 큰 역할이며, 고교생의 한국에 관한 학습에 큰 동기마련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교육 상황을 반영하여 아직도 수험자수는 200명 이하이며(대학입시센터발표), 결코 많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곧바로 대학에서의 연구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낙관적인 예측은 할 수 없다.

(32) 《朝鮮學會會員名簿》, 2003年版에 의한다. 빈

(33) 《朝鮮史研究會會員名簿》, 2000年版에 의한다.

(34) 《韓國·朝鮮文化研究會2004年度會員名簿》에 의한다.

(35) 제1회 대회부터 현재까지의 심포지엄·테마는 이하와 같다.

- 2000년 교차하는 필드-역사·문화·사회, 그리고 창조  
2001년 한국 연구에서의 필드의 본연의 자세  
2002년 「근대」라고 하는 체험  
2003년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조선 사회 : 지역을 움직이는 중간층  
2004년 종교와 여성-역사, 월경, 지역
- (36) 朝鮮史研究會編 『新朝鮮史入門』(龍溪書舍, 1981年) 및 『梶村秀樹, 朝鮮現代史の手引き』(勁草書房, 1981年)에 1980년 무렵의 정보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